

기혼여성·노인 취업 적극유도

보육시설 95년까지 2천10곳으로 늘려 정부투자기관 기능직 정년 연장 추진

정부는 늘고 있는 여성 및 고령 인력 등 유휴인력을 산업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, 기존여성들의 취업에 애로요인이 되고 있는 보육시설을 확충하고, 정부투자기관 기능직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.

또 각 읍·면·동에 '취업알선 전담창구'를 설치하는 등 직업안정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.

정부는 2일 오전 강현옥 경제기획원 장관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

탄력성을 부여하며 △올해 7백50곳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보육시설을 공단과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95년까지 2천10곳 규모로 늘려나가기로 했다.

또 고령인력 취업이 확대될 수 있게 △현재 53~58살인 정부 투자기관 기능직 정년을 2~3년 연

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△고령자가 취업하기에 적합한 공무원 직종에 대해서는 응시연령 제한을 완화하며 △공공기관의 단순직종(매표원, 주차단속요원, 청사관리인 등)에는 고령자를 우선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.

이와 함께 '구인·구직 정보' 발

행 물량을 매주 1회 5만부에서 매주 2회 25만부로 늘리고,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직업훈련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 수준으로 줄이며, 시간제 근무가 적합한 직종을 이달 안에 뽑아 기업체에서 활용토록 유도하기로 했다.